뜨락

07호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신문 2009. 7. 15. Wednesday

GAFL
경기외국어고등학교
Gyeonggi Academy of Foreign Languages

· 발행인 : 박하식
· 발행처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 기획 : 지도교사 하연경, 부장 김미경
· 취재 및 편집 : 변승우 외 신문부 18명
· 사진기자 : 최유진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산 21-2
· 전화번호 : 031_361_0500
· 팩스번호 : 031_361_0599

경기외고 입학사정관제 실시

2010학년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요항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남,여 8학급 320명)

전형구분	전형별		영어과 (4학급)	중국어과 (2학급)	일본어과 (2학급)	계 (8학급)
정원내	경기도지역균형선발		40	20	20	80
	미래 인재		48	32	32	112
	글로벌 인재		16	0	0	16
	일반성적우수자		48	24	24	96
	외국어 우수자	영 어	8	0	0	8
		중국어	0	4	0	4
		일본어	0	0	4	4
소 계			160	80	80	320
정원외	지역우수자		8	4	4	16
	특례 입학 대상자		(6)	0	0	(6)
	국가유공자 자녀		(9)			(9)
소 계						16 (15)
합 계			168	84	84	336 (15)

※ 영어과는 전공어가 영어, 제 1선택어는 중국어/일본어임.
※ 중국어과/일본어과는 전공어가 중국어/일본어, 제1선택어는 영어임.
※ 지원자는 한 전형만 지원할 수 있음. (중복 지원 불가)
단, 경기도지역균형선발, 미래인재 전형과 글로벌인재 전형은 당락 시 일반 성적 우수자 전형에 자동 응시됨. (전형방법 참조)
※ 의왕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중 모집정원의 5%이내 (16명)를 지역우수자전형으로 (모집정원외) 선발함.
※ 특례입학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 47조 1항, 동법 시행령 제 75조 및 제 8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정원의 2%이내 (6명)에서 정원 외로 선발함.
※ 국가유공자 자녀는 성적이 일반성적우수자의 합격권 내에 들 경우 모집정원의 3%이내(9명)에서 모집정원 외로 선발함.
※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함.

2. 지원자격

(1) 공통 사항

가. 경기도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본인 가족이 거주, 이하 같음)
다.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마. 타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바. 외국어고등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타 시·도의 중학교 졸업예정자(2010학년도 3월 외국어고 신입생 모집이 없는 타 시·도 지역)

(2) 지원 자격

경기도 지역 균형 선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4학기 5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평균 석차백분율이 5% 이내인 자 가운데 학교장이 추천한 모범학생 (※ 학교별 추천 인원은 3학년 학급이 6학급 이하인 학교는 1명, 7학급 이상 12학급 이하인 학교는 2명, 13학급 이상인 학교는 3명까지 추천가능)
미래 인재		①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성적 중 한 학기 5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평균 석차 백분율이 10% 이내인자로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② 검정고시 출신자는 전 과목 평균 97점 이상 ③ 특성화 중학교 출신자 (국제 계열) ④ 중학교 재학기간 중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영재교육원 1년 이상 이수자 (※ 명재학급이나 사이버영재교육 이수자는 제외함.)
글로벌 인재		① 1학년부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2개 학기 이상의 영어 성적 석차 백분율이 10% 이내에 드는 자로 영어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자 ② 외국학교 재학자 중 두 개 학기 이상의 전 과목 평균이 4.5 이상이거나 (A=5, B=4, C=3, D 이하 1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자 ③ 검정고시 출신자는 전 과목 평균 97점 이상 ④ 특성화 중학교 출신자 (국제 계열) ⑤ 중학교 재학기간 중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영재교육원 1년 이상 이수자 (※ 명재학급이나 사이버영재교육 이수자는 제외함.)
외국어 우수자	영 어	영어 능력 우수자
	중국어	중국어 능력 우수자
	일본어	일본어 능력 우수자
일반성적 우수자		①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성적 중 한 학기 5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평균 석차 백분율이 15% 이내인자 ② 검정고시 출신자는 전 과목 평균 95점 이상
지역 우수자		의왕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중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성적 중 한 학기 5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평균 석차 백분율이 10% 이내인자
특례 입학 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조~15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단, 내신산출시 과목별 반영비율은 국어(3), 사회(1), 수학(4), 과학(1), 영어(2)로 함.(※괄호안의 숫자는 가중치)

3. 전형방법

경기도 지역 균형 선발	서류평가	▷ 서류평가 100점 내신성적 60점 / 교사추천서 16점 / 활동보고서 16점 / 학업계획서 8점 ▷ 불합격할 경우 일반성적우수자전형에 자동 지원됨
미래 인재	1단계 : 서류평가로 2배수 우선 선발 2단계 : 총점 200점 · 서류평가 100점 · 영어듣기 100점	▷ 서류평가 100점 내신성적 70점 / 교사추천서 10점 / 활동보고서 15점 / 학업계획서 5점 ▷ 1단계 불합격할 경우 일반성적우수자전형에 자동 지원됨 ▷ 2단계 불합격할 경우 일반성적우수자 사정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글로벌 인재	1단계 : 서류평가로 2배수 우선 선발 2단계 : 총점 200점 · 서류평가 60점 · 영어에세이 40점 · 영어듣기 100점	▷ 서류평가 60점 내신성적 42점 / 교사추천서 6점 / 활동보고서 9점 / 학업계획서 3점 ▷ 1단계 불합격할 경우 일반성적우수자전형에 자동 지원됨 ▷ 2단계 불합격할 경우 일반성적우수자 사정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외국어 우수자 (영 어 / 일본어 / 중국어)	총점 200점 · 영어듣기 100점 · 해당 외국어 에세이 60점 · 해당 외국어 면접 40점	
일반성적 우수자	총점 200점 · 내신 100점 · 영어듣기 100점	
지역 우수자	총점 200점 · 내신 100점 · 영어듣기 100점	
특례입학	외국어(영어)우수자 전형방식 으로 선발함	

※ 중국어, 일본어 우수자, 특례를 제외한 나머지 전형은 정원만큼 선발한 후 성적순으로 지망한 과를 배정한다.
※ 서류평가는 본고의 입학사정관이 실시함.

NONSENSE Q)s 1. What is the capital of Australia? 2. What is Father Christmas's wife called?

경기외고로서의 새로운 시작, 입학식

- 미래를 보는 눈으로 세계를 향해

지난 3월 2일, 경기외고로 새롭게 탄생한 명지외고의 제6회 입학식이 체육관에서 치러졌다. 343명의 신입생이 새로이 학교의 구성원이 되는 이 행사에는 학교 법인 붕암학원의 강영중 이사장, 이형구 의왕시장 등의 내빈들과 학부모 500여 분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입학식은 신입생들의 입장으로 시작되었다. 각 과별 전통 의상을 입은 학생회 대표들이 선두에서 학생들을 이끌었는데, 입장하는 동안 스크린에서는 각 과의 특성이 담긴 영상과 함께 입학생 개개인의 이름이 나왔다. 신입생들은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모두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표정이었다.

이 날 행사는 신입생을 환영하는 입학식이며 동시에 경기외고 출범식이라는 의미도 갖는 날이기도 했다. 이를 기념하여 박하식 교장선생님의 입학식 축사가 있었다. 교장선생님은 'Great Vision(원대한 비전)', 'Creative Thinking(창조적 사고)', 'Global Mind(국제적 정신)' 의 세 가지를 강조하시며, 신입생 모두가 세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연설을 하셨다. 그리고는 신입생 모두와 함께 "Yes, we can!"을 힘차게 외치시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축사가 끝난 후에는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세 차례에 걸친 장학생 선발 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들의 장학금을 받았다. 금년에는 외부 장학금이 예년보다 현저히 늘어, 전체 신입생 가운데 약 10% 가량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공식행사가 끝나고 학생들이 입학식의 하이라이트였다고 여기는 선배들의 축하 공연이 있었다. 오케스트라 돌체, 노래 동아리 세이렌, 댄스 동아리 스텔로 등의 공연은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렇게 한창 들뜬 분위기는 경기외고의 새 교복 패션쇼로 이어졌다.

행사는 여러 인사들의 동영상 축사와 학생들의 교가 제창으로 마무리 되었다. 학교의 웅대한 포부만큼이나 웅장했던 입학식이었다. Global Top 7 High School (세계 7대 명문 고등학교)에 도전하는 경기외고의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박형선 기자

'경기외고에서의 스승의 날 행사'

5월 15일 스승의 날. 본교 체육관에서 1, 2교시에 걸쳐 총학생회 주관의 스승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제일 먼저 경기외고 오케스트라 돌체의 축하공연이 있었는데, 연주가 끝난 후에는 선생님들께서 기립박수를 하셨다. 바로 이어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생회 및 학급 임원들이 선생님들께 꽃을 달아 드렸고 조혜연 학생은 학생 대표로 '선생님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였다. 이어 총학생회는 축가로 '보랏빛 향기'를 피켓과 함께 준비하여 행사의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졌다. 이어서 박하식 교장선생님의 훈화말씀과 여러 시상이 이어졌다.

뒤이어 이 날 행사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특집! 가플리언에게 물었습니다〉가 진행 되었다. '매점에서 만나면 가장 먹을 것을 안 사주실 것 같은 선생님은?' 이라는 질문에 하형구 선생님, 박진 선생님께서 1위로 뽑히셨고 '애교가 가장 많을 것 같은 선생님은?' 에는 전선희 선생님, 김나래 선생님께서 1위로 뽑히셨다. 진행자들은 김나래 선생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선생님의 애교를 살짝 엿보는 기회도 가져보았다. '학창시절 아이돌스타를 가장 많이 따라다녔을 것 같은 선생님은?' 에는 전선희 선생님, 김예진 선생님이, '가장 닭살커플일 것 같은 선생님은?' 에는 하형구 선생님, 박준희 선생님께서 1위를 하셨다. 그 다음 질문인 '가장 패션리더일 것 같은 선생님은?' 에서는 유형숙 선생님, 홍지영 선생님, 정세영 선생님이 1위를 하셨고, 세 분을 무대 위로 모셔 모델 워킹을 보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학창 시절 잘 놀았을 것 같은 선생님은?' 에는 장지성 선생님, 정주원 선생님이 1위를 하셨다. '여장 · 남장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선생님은?' 에서는 홍지영 선생님, 이기찬 선생님,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를 안 놓을 것 같은 선생님은?' 에서는 이기찬 선생님, 장지성 선생님이 1위를 하셨다. 이어서 이 질문에 1위를 하신 두 분의 노래를 듣는 시간이 마련되었는데, 두 선생님 모두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주셔서 학생, 선생님 모두의 큰 호응을 얻었다. 끝으로 스승의 날 행사답게 '스승의 은혜'를 전교생이 합창하면서 행사를 끝맺었다.

노지원 기자

Answers: 1. A. 2. Mary Christmas.

세족식, '훈훈' 그 자체!

지난 4월 초, 경기외고만의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그 특별한 행사는 바로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신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고 본받자는 의미에서 치러지는 행사이다. 경기외고만의 특별한 전통인 세족식을 위해 각 반 학생들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다목적실로 내려갔고, 목사님과 담임선생님 그리고 두세 분의 다른 선생님들이 세족식에 참여해주셨다.

다목적실은 촛불들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잔잔한 찬송가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담임선생님의 기도로 세족식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세족식을 위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고, 선생님들은 그 물로 학생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주셨다. 그러시면서 학교생활은 어떤지, 힘든 일은 없는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등을 물어보시고 그 학생을 위해 기도도 해주셨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의 관심과 따뜻한 사랑에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진 것일까, 고맙고 미안했던 친구에게 다가가 먼저 안아주며 우는 학생들도 보였다.

세족식에 대한 별다른 기대 없이 다목적실에 들어갔는데 펑펑 울고 나왔다는 한 1학년 학생은 "선생님이 발을 씻어주실 때,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서럽고 힘들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며 "세족식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느꼈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생겼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1학기, 2번째 중간고사를 치르다

5월 15일, 5월 6일부터 경기외고 GLOBAL HALL에서 실시되었던 AP시험이 막을 내렸다. 많은 학생들은 이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AP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금부터 AP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AP시험이란 무엇일까**

학생들은 마치 중간고사가 끝난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AP시험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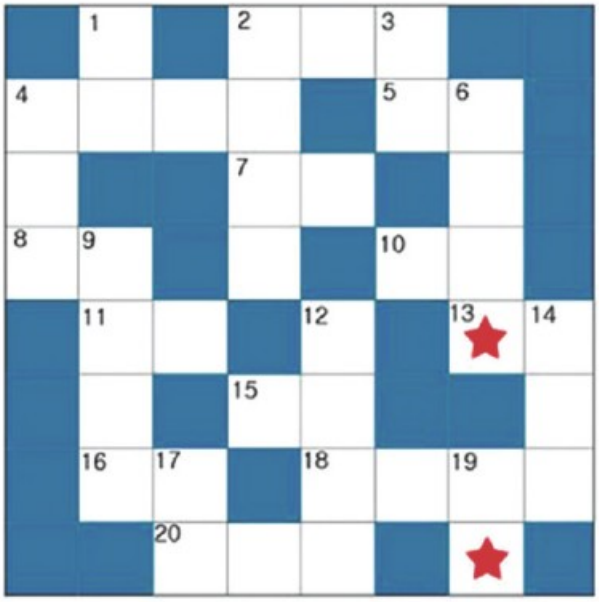
원래 AP 시험이란 미국의 고등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 1학년 때에 수강할 과목들을 미리 선택하여 수강한 후 시험을 봄으로써 학점을 미리 따는 제도라 한다.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는 점에서 SAT와는 구별된다. 당초 이 제도는 학력 편차가 심한 미국에서 우수한 고등학생들에게 지적 허기를 충족시켜주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이 AP 시험에서 3점 이상을 받으면(5점 만점) 해당되는 과목의 대학 이수 학점을 미리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적은 대학 입학 시 가산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 시험에 응시하는 이유도 국내 또는 국외 대학을 진학할 때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AP시험의 효용에 대한 2가지 견해**

하지만 이러한 AP시험이 국내 대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국내 대학입시에서 AP과목이수는 내신과 영어 공인성적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다. 더군다나 AP는 수시로 지원할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예 AP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도 많다. AP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위와 같은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들은 '만약 내신과 영어 공인성적이 비슷하다면, AP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박선홍 기자

낱말퍼즐



■ 가로열쇠

2. 기가 허하여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체
4.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5. 우유의 지방을 분리하여 응고시킨 식품
7. 사업이 잘됨
8.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함
10. 손님을 맞아서 시중을 듦
11. 뇌물을 받음
13. 약방의 ○○
15. 씨름에서 허리에 묶는 천
16. 왕세자, 왕후 등을 봉작하던 일
18. 입으로 실감나게 들려주는 동화
20.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있는 뾰족한 이

■ 세로열쇠

1. 레코드판
2.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
3. 댐을 만드는 동물
4. 혈액 속의 붉은색의 성분
6. 구성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람
9.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함
12. '틈'을 낮잡아 이르는 말
14. 사람의 얼굴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
17. 성물(聖物) 따위를 정중히 운반함
19. 어린아이의 마음

답은 http://cafe.naver.com/ttrakofgafl 에 올려놓겠습니다.

교복, 경기외고인들의 새로운 자부심

6기 신입생들의 입학 전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새로이 바뀌는 경기외고의 교복이었다. 베일에 싸인 채 수많은 추측만이 난무한 가운데 새 교복이 2월 12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전의 교복과는 달리 정장과 캐주얼 복장으로 나뉜 새 교복은 기존의 교복에 대한 통념을 깨뜨릴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이전 교복이 기독교 학교의 이미지에 맞게 절제미와 세련됨을 살린 교복이었다면, 새롭게 바뀐 교복은 학교의 이념에 따라 개방성을 추구한 스타일의 교복이다.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색깔 및 구조가 이전보다 훨씬 화려해졌다. 이 교복의 디자인은 공개 후 학생, 학부모는 물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어,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교복을 입으면 매일 학교에 가고 싶을 것 같다' 라고 할 정도였다.

학생들에게 교복을 배부할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여학생들의 정장 교복의 치마 길이였다.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공지했던 치마 길이에 대한 규정보다 한참 짧은 주름치마였던 것. 교복을 입어보던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혼란스러워 했고, 결국 학교 측에서 치마 길이를 인정해주기로 해 혼란은 막을 내렸다.

이 외에도 교복 가격 등 교복에 관해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새 교복은 이전의 교복이 그랬던 것처럼 경기외고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자부심으로서 자리를 굳혀 나가고 있다. 이제 여름 계절을 위한 하복이 나와 다시 한 번 새 교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교복이 그저 '예쁜 교복' 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교복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박형선 기자

급식실에도 변화가 …

학교의 이름, 생활관 등 여러 변화와 함께 급식실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기숙학교인 만큼 우리 생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급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자.

경기외고의 급식이 작년과는 매우 달라졌는데 이는 교장선생님, 영양사 및 조리사분들, 학부모님들의 요구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모두 적극적으로 반응된 결과이다. 먼저 아침에 씨리얼과 우유가 매일 제공되고, 특히 양식에 여러 가지 더 메뉴가 추가 되었으며 그 빈도도 늘었다. 이에 영양사선생님은 "학생들이 포만감 있는 양식을 원하는 것 같아 횟수를 늘였는데, 그 반응이 매우 좋아 양식과 한식의 비율을 5:5로 늘리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식에는 셀프 배식대를 설치하여 샐러드나 과일들을 항상 제공한다. 이는 매일 과일을 원하던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작년 주3회 배식되던 간식이 주5회로 늘어났으며 간식 조리도 급식실에서 자체적으로 담당한다. 급식실담당자 분께서는 "건강식을 원하는 친구들과 맛있는 쪽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한다"며 두 요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음식 뿐 아니라 급식실에서 방송하던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생겼다. 작년까지는 항상 CNN을 틀어주었는데 아침에는 클래식, 저녁에는 K-pop으로 바뀌었다. 많은 학생들이 특히 K-pop의 방송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급식실 관리자분께서는 "언제나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한 두명이 아닌 1000명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만족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건의할 내용은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무실로 와 이야기하면 더 전달이 빠르다."며 당부하셨고 "언제나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조리과정도 직접 보면서 더 친해지게 되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학생들과 급식실 모두 글로벌 TOP7 HIGH SCHOOL이 되도록 같이 발전해 나가자"라는 바람을 전했다.

김미겸 기자

Answers: 3. Squash. 4. A nose.

ASG, 그 취지와 성과는?

학교가 명지외고에서 경기외고로 새 출발을 하면서 크게 달라진 제도 중 하나가 바로 ASG이다. ASG란 After School of GAFL, 즉 〈방과후학교〉를 부르는 명칭이다. 학기 중 운영되는 ASG Spring/Fall 같은 경우 통학생을 제외한 모든 1, 2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ASG1을 의무적으로 들어야만 하고, 학생들은 여러 ASG반 중에서 하나를 골라 일주일 동안 정해진 계획에 따라 수업을 듣는다. 1학년의 경우는 체육, 음악 등 인성교육이 2학년은 교과과목 중심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ASG Spring이 시행된지 벌써 3달이 지나가는 이 시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새 제도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2학년 4반의 한 학생은 ASG1으로 인해 자습시간이 줄어들어 자기주도학습시간이 부족하다며 불평했고, 또한 ASG1과목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어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학생은 ASG1의 의도는 좋았으나, 처음인지는 몰라도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학생 개개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들 학생 외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ASG1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 부정적인 의견 중에는 반 이동 때문에 소지품이 없어졌다는 것도 있다. 하지만 ASG1은 수업시간에 배우지 못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시간을 잘 활용하면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자습시간에 실력이 뛰어나신 선생님들의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ASG1의 수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장점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다. ASG의 좋은 취지를 살려 ASG Summer부터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변모하길 바란다.

변승무 기자

Gaflian, 외출하다!

체험학습에 가기에는 조금 흐린 날씨의 21일 목요일, 경기외고생들이 체험학습에 나섰다. 이번 체험학습의 장소는 1학년들은 경기도 양평의 외갓집 체험촌, 2학년들은 용인 에버랜드였고,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 6시경에 모두 학교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이었다. 외갓집 체험을 간 1학년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송어 잡기, 진흙으로 집 만들기, 모내기, 뗏목 타기, 인절미 만들어 먹기 등 평소에는 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을 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비가 오는 바람에 감자를 캐는 활동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다른 좋은 프로그램들 덕분에 학생들은 매우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1학년들은 서로의 끈끈한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자연에서 숨 쉬는 것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한다. 송어를 잡으면서 반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전략을 짜고, 협동심을 기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모내기 체험을 하며 농부들의 수고를 깨달을 수 있었고 떡을 함께 만들어 먹으면서 서로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야외 활동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일부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체험학습에 참가한 후 매우 만족해했다고 한다. 마지막엔 반별로 사진을 찍으며 서로의 추억을 기념했다. 즐거웠던 체험학습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가플리안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골아 떨어졌다. 열정적이었던 체험학습의 결과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무쪼록 이번 체험학습을 계기로,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열정적인 가플리안이 되었으면 한다.

김선진 기자

"비 오는 날... 그래도 그들은 즐거웠다" - 2학년 체험학습, 비 오는 에버랜드 대신 롯데월드에 다녀와

경기외고 2학년생 300여명이 지난 5월 21일 롯데월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 날 하루종일 비가 내렸으나 학생들은 쏟아지는 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즐거움을 만끽했다.

원래 용인 에버랜드로 갈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비에 학교 측은 행선지를 롯데월드로 옮겼다. 실내에도 시설이 있는 롯데월드로 방향을 돌린 학교의 결정에 학생들은 크게 환호했다.

2학년 김 아무개(16)군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에버랜드에 갔더라면 옷이 다 젖어 큰 고생을 했을 것"이라며 학교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그는 "고등학교 생활 중 마지막 소풍인 만큼 내게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비를 맞지 않아도 되는 롯데월드로 가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잠시 비가 그쳐 수많은 학생들이 실외 놀이기구들이 위치한 매직 아일랜드로 향했지만 다시 시작된 비로 인해 롯데월드의 주요 놀이시설인 자이로 드롭이나 자이로 스윙, 아트란티스 등이 운행이 중단되어 학생들에게 아쉬움을 주었다.

이날 롯데월드에는 유명 아이돌 그룹 카라(KARA)의 멤버 한승연이 방송 촬영을 위해 방문하기도 해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촬영 도중에 몇몇 열성적인 팬들이 그녀에게 접근하려다 경호를 맡은 용역업체 직원들에 가로막혀 시비가 붙은 일이 있었을 정도였다. 이후 시간이 지나며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갔지만 일부는 "연예인이 왔는데 사인도 받지 않고 그냥 갈 수는 없다"며 끝까지 남아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다행으로, 이날 롯데월드에는 평소의 반도 채 못 미치는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마침 평일이었던데다 비 까지 겹쳤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학생들은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고도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평상시에는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던 실내 롤러코스터 '후렌치 레볼루션'이나 바이킹 '스페인 해적선'은 약 25분 내외의 대기 시간을 보이면서 학생들의 불편을 상당 부분 줄여주었다.

이후 버스를 타고 다시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은 9시까지의 자유 시간을 누리며 하루 동안의 피로를 풀었다. 2학년 학생 이 아무개(16)군은 "비록 비가 와서 조금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좋은 추억이었다"며 "다시없을 고등학교 소풍이었기에 더욱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군 외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준다면 다시 한 번 놀러가고 싶다고 아쉬운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강다솔 기자

2009 체육대회

지난 5월 22일 화려한 입장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경기외고 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

오전에는 축구, 피구, 그리고 농구경기의 결승전이 진행되었다. 이 세 종목의 예선은 체육대회 일주일 전부터 치러졌으며, 예상대로 각 팀의 뜨거운 응원이 결승전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어 주었다.

결승전들을 모두 마친 뒤에 오후에 왕중왕전이 진행되었다. 왕중왕전은 각 세 종목에서 우승한 1, 2학년끼리의 시합이었는데, 농구경기에서는 1학년 '그림자' 선수가 앞니가 부러지는 불상사가 있기도 하였다. 축구경기에서는 신현필 선생님, Mr.Bell 선생님, 그리고 이기찬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경기에 참가하셔서 한층 더 즐거웠던 경기였다.

구기 종목의 왕중왕전이 끝난 후에는 줄다리기와 공굴리기 경기가 이어졌다. 공굴리기 경기 중 우승하겠다는 경쟁심에 빨리 달리느라 넘어지는 선수들도 많았지만, 그만큼 열정적으로 참여함이 잘 드러났다. 마지막에 치러진 계주는 1학년, 2학년을 통합해 각 과별로 4명씩 달렸다. 모두가 각 과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뛰었고, 승리는 중국어과에게로 돌아갔다.

입장 퍼레이드부터 계주까지 모든 점수를 종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팀에게 주는 종합 우승은 피구에서 승리를 거머쥔 1학년 중국어과가, 입장 퍼레이드에서 완벽한 춤으로 각광받은 2학년 중국어과가 차지했다. 또한 준우승은 1학년 일본어과, 2학년 일본어과가 차지했다. 승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배들과 후배들,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만든 체육대회의 추억이다. 모두가 그렇게 행복하고 예쁜 추억을 가슴에 담은 채 2009년 경기외고 체육대회는 막을 내렸다.

신현주, 김주영, 김채영, 이주영 기자

Answers: 5. A chilli pepper (a chilly pepper). 6. An octo-puss (octopus).

NONSENSE Q)s 7. What two things can you never eat for breakfast? 8. What runs but cannot walk?

우승팀

	1학년	2학년
축구	영일과	일본어과
농구	일어과	중어과
피구	중어과	영일과
줄다리기	영일과	영일과
계주	중어과	중어과
공굴리기	영일과	일어과
종합우승	중어과	중어과

1학년 축구 우승 - 영일

2학년 축구 우승 - 일어

1학년 농구 우승 - 일어

2학년 농구 우승 - 중어

1학년 피구 우승 - 중어

2학년 피구 우승 - 영일

1학년 줄다리기 우승 - 영일

2학년 줄다리기 우승 - 영일

사진기자 최유진

경기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된 지 어언 6년. 학교설립 당시부터 경기외국어고등학교로 변화할 때까지 학교와 함께하신 전성은 교감선생님. 언제나 교정을 돌아다니시며 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친근히 다가가시는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자.

1. 안녕하세요?

– 예, 안녕하세요?

2. 벌써 우리 학교가 탄생한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의 설립 초기부터 학교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오셨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경기외고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특히 수학교사가 되고 싶었기에 사범대학을 나오고 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일고에서 11년 동안 재직했었습니다. 그곳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고 가르치는 일 자체가 즐거웠어요. 그 후 대성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가 명지외고(현 경기외고)로 오게 되었지요.

3. 아무래도 학교 초기에는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 그렇지요.(웃음) 첫 해에는 일 년 동안 삼분의 일 정도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밤 10시, 11시 쯤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죠. 첫 해에 1학년 1반 담임을 맡았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면담도 못해 주어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실력들에 비해 대학은 잘 갔어요. 잘 된 일이지요^^ 그리고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기에 몸은 피곤했지만 매우 보람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학생들과의 소중한 추억들입니다. 학교가 막 개교한 당시에는 학생이 320명밖에 없어서 파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교실이나 교무실에서도 – 그 당시에는 음식물 반입이 허용되었거든요^^

4.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해 주세요^^

– 땐 처음 학교를 찾아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에는 네비게이션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렵게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정문 앞에 엄청나게 큰 돌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힘들게 차를 끌고 운동장에 들어왔는데 당시에 눈이 왔다가 녹아서 땅이 매우 질었습니다. 그래서 차바퀴가 흙에 빠져서 많이 고생했었지요.

5. 그러신 만큼 학교에 대한 애착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 그렇죠. 경기외고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6. 아, 그리고 늦었지만 금년에 교감선생님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전부터 학교를 위해 많이 애써오셨지만, 교감선생님이 되시면서 학교에 대한 책임감의 정도나 하시는 일 등 여러 가지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 일단, 책임감이 더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르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보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연구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학성적에 대해서도 더 신경쓰게 되구요. 또한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통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께서 바라시는 '가끔'의 현재는 어떠한가요? 또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 먼저, 우리의 현재는 재정적으로 튼튼한 법인을 바탕으로 기숙사를 통해 효과적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과 학생이지요. 학교가 젊기 때문에 열정을 가진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한데 모여 '섬기는 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단결된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시지요. 이런 선생님들의 열정에 학생들 또한 매우 우수하지요. 또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목요음악회, 추수감사절파티, passion 등이 있지요.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정된 공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봉산을 개발해서 숲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숲 속에 벤치도 예쁘게 만들어서 야외수업도 하고 산책을 거닐 수도 있게 말이지요. 그리고 현재 1학년 학생들은 6인 1실을 쓰고 있는데, 기숙사 확장을 통해 모두 4인 1실로 바꾸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카페 등을 많이 개설하고, 도서관도 크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운동 시설들(수영장, 요가, 헬스 등)도 마련해 주고 싶고, 명문고에 걸맞는 활성화된 학생 자치 활동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부에게 더 나은 장비를 지원하면 더욱 좋겠죠?

8. 금년에 우리학교가 경기외고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변화 중 하나가 1, 2학년의 ASG제도의 도입입니다. ASG의 취지, 그리고 진행 방향은 무엇인가요?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언어, 수리, 외국어 등 교과목 분야에서는 심화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과목만큼이나 중요한 인성이나 예체능 분야는 사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에게는 테니스, 라크로스, 바이올린 등의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학년의 경우에는 수능 준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TEPS, 언어, 수리, 사탐, 과탐 등 여러 가지 코스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재미있고 알찬 수업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ASG시간에 졸거나 자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보내는 한 시간, 한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1학년은 전인교육 위주, 2학년과 3학년은 수능 준비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많은 강좌를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GAFL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2012년에 최고의 고등학교, 2020년에 Global Top 7이 될 것입니다.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한창 젊으니 몸바쳐서 일할 각오도 되어 있구요.(웃음)

언제나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기외고의 훈남 전성은 선생님과의 인터뷰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의 GAFL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앞으로의 Global Top7을 향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성은 교감선생님, 앞으로도 힘내세요!!

김미겸, 김건희, 김새람 기자

밝고 순수한, 신현필 선생님의 젠틀함에 빠져 봅시다!

1.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서 첫 교직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이신만큼 의미가 깊으실 텐데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 화분을 가꾸는 듯 한 기분이에요. 화분에 끊임없이 물을 주고 가꾸는 것처럼 아이들을 끊임없는 관심으로 보살피고 키우면서 모두 예쁜 꽃처럼 잘 자라났으면 하고 바랍니다. 원래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영어라는 과목이 좋아서 교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더 큰 열정을 가지고 교직생활의 첫 스타트를 끊었지요. 다만 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이라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하는 데 있어 학급 분위기도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2. 선생님께서는 더 없이 순수한 함박웃음과 동안으로 실제 학생보다 더 학생답게 느껴지시는데요, 실제로 선생님의 학창 시절은 어떠했을지 궁금합니다.

– 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왕따였던거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혼자서 조용히 교실에 앉아있는…. 왜 있잖아요 항상 구석에서 정석만 푸는 – 딱 그런 학생이었어요. 더구나 남고에 다녔고, 전교에 양호선생님 한 분만 빼고 전부 남자선생님이셔서 학교분위기가 더 칙칙했죠. 그래서 항상 활발히 지내는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3. 정말 단호하게 '왕따'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런 분이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셨다니 믿기지 않아요.

– 내 친구도 군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한 첫 말이 정말 안 어울린다였어요. 하지만 카투사 생활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추천해 주고 싶어요. 다른 군복무보다 훨씬 자유롭고, 마치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것과 같이 영어 공부에도 큰 도움이 돼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한번 지원해 보세요.

4. 이번 질문은 다른 반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핸드폰의 'my Angel'은 누구죠?

– 아, 이렇게 뭔 거 다 말하죠 뭐.(웃음) 2년 전에 같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만나게 된 아가씨인데,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나보다 6살 정도 어린 친구인데,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거절당하고 한동안 연락이 뜸하다가 논문을 쓰면서 다시 친해지게 됐죠. 그런데 이 아가씨가 엄청 도도해서 그냥 순순히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이는 법이 없어요.(웃음). 결론적으로는, 내가 2년째 짝사랑 중인 거지요.

5. 좀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그런가?? 그래도 인연이 된다면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 믿고 있어요.

6. 앞으로 선생님의 교직생활이 30년도 넘게 남았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 모든 선생님이 그렇듯 잘 가르치는 선생님.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즐길 때는 같이 즐기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려는 것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7.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외고 학생들에게 한 말씀!

– 여기 경기외고에서 나의 첫 교직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인 만큼 더 열심히 노력중이야. 친구들과 재밌게 지내고 활발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모두 노력해서 좋은 학급 분위기에서, 즐거운 고교생활 만들어 나갑시다.

이것으로 순수완소남 신현필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마쳤다. 항상 배려심 많으시고 맑은 신현필 선생님, 앞으로도 그 순수함 잃지 마시고 'my Angel'이라는 분과 좋은 결실 맺길 바랄게요!!

다른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신현필 선생님은?

하연경 – 귀여우신 분^^ 늘 웃는 모습으로 준비된 매너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김지샘 – '젠틀' 그 자체

백영옥 – 마치 수도꼭지의 물처럼 환하고 순수하신, 그리고 항상 남을 배려하시고 좋은 말만 해주시는 선생님

김미겸 기자

Answers: 9. A mushroom 10. Smiles: there's a mile between the first and last letters.

올해 2학년 연구부의 부장을 맡으신 백영옥 선생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학생들 사이에서 엄격해지셨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선생님의 속마음과 평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밀착 취재해 보았습니다.

1.교실이 산 쪽에 위치한 일본어과 학생들이 예전부터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점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선생님께서 건의해 주셔서 형광등을 다수 설치해 교실이 밝아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배려에 감동하였습니다.

– 산 때문에 다른 과의 교실에 비해 햇살을 받지 못하는 일본어과에 대해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수업 도중 아이들의 불평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곤 했지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교실을 바꿀 수가 없기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형광등을 더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저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때마다, 진작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ㅎㅎ

2.작년에는 담임을 맡으셨는데, 올해는 2학년 전체의 담임과 같은 학년 부장을 맡으셨는데요. 많은 책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 우선 학생들과의 마찰이 많이 생긴 것이 사실이에요. 학년 부장이다 보니 모든 학생들의 잘못을 고쳐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3. 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 저는 교육을 학생과 교사가 진실된 마음으로 소통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대한다면 학생들도 저의 마음을 알아 주지 않을까요? (웃음)

4.다른 선생님들의 생일을 챙겨주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저는 선생님과의 관계도?학생들과 같이, 관심이 첫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초 선생님들의 생일을 알아두었다가 축하해 드리고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꼭! 카드 한 장씩은 써드려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 점에 대해 큰 고마움을 느끼시다니 송구스럽네요...ㅎㅎ

5.교사경력 10년이 넘으시면서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면 어떤 분이 계십니까?

– 특수학교의 교사가 된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제자가 전화할 때마다 항상 저에게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럴 때면 저로 인해 한 제자가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고 그것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6.최근 국어 시간이 발표 위주로 변하면서 선생님이 준비하신 수업을 못 하실 때, 아쉬운 마음은 안 드시는지?

– 안 든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나도 한 학생처럼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인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을 우리 학생들이 발표해 주면, 저도 수업 도중 많은 것을 알아 갈 수 있고, 여러분도 한 작품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7. 선생님에게 있어 교사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제가 경기외고에 오기 전에는 가톨릭 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선생이 학생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명지외고(현 경기외고)로 발령났을 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기회라고 여겼던 거지요. 이곳에서 각각의 학생들을 알아가고 그들 속에 숨겨진 잠재적인 능력을 이끌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만의 잠재능력을 인식했을 때, 그들의 능력과 실력은 무궁무진 할 것입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백영옥 선생님은?

신현팔! – 어렵거나 힘든 일 있을 때 옆에서 큰 도움이 되시는 분. 생일 때도 선물과 카드를 챙겨주시는 다정하신 선생님.

하연경! – 우리 2학년 선생님들을 잘 보살펴 주시는 선생님.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생각하시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

전성은 교감선생님 –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은 이쁜 백영옥 선생님. 힘내셔서 경기외고를 최고로 만드시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주세요. 백영옥 선생님 파이팅!

박하식 교장선생님 – 문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나시고 아름다운 백영옥 선생님. 앞으로도 열심히,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동현 기자

나중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만납시다~ 박동우 선생님과 함께한 인터뷰!

명지외고에서 경기외고로 바뀌면서 새로운 선생님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1학년 1,2,5,6반 수학 선생님을 맡고 계신 박동우 선생님과 인터뷰를 가져보았습니다.
평소, 개구지고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으로 유명하신 선생님이지만 인터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임해 주셨어요.

1. 학교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와는 다르게 깔끔하고, 학생들도 활기차고 분위기도 생동감 있어 보였어요. 맘에 들어요. 교무실도 널찍하고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분위기도 부드러운 것 같고요.

2. 그렇다면 선생님의 학창 시절은 어떠셨나요?

– 저는 다양한 친구들과 지냈어요. 지금 친구들을 보면 검사, 의사, 철학자, 그리고 조폭이 된 친구들도 있어요. 고정관념이라든지 한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해요. 저는 다양성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구도 다양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

3. 현재 6기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6기들에 대한 첫인상은?

– 활기차고 웃음이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경쟁이나 여러 가지 압박감에도 시달리지만 웃으면서 해결할 줄 알고…. 밝은 것 같아요. 모두 이런 밝은 모습 가지고 끝까지 잘 헤내서 졸업하고 나서도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좋은 관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함께 사는 거잖아요^^

4. 그러면, 활기찬 6기가 이런 점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은요?

– 음… 아직 중학교 티를 못 벗고 있어요. 더 신중해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열심히 노는 만큼 공부도 많이 신경썼으면 좋겠어요^^

5.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 먼저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전에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학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어떤 학생들을 보면 무조건 공식을 암기하려고만 하고 문제만 많이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식'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문제에 접근해야 되요. 그리고 도전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생각해 보고요. 실제로 저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한 달 내내 붙잡고 풀었던 경우도 있어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문제 가지고 한 달 내내 고민하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고민해보고 계속 생각해보려는 노력은 해야 해요. 이러한 점은 수학뿐 아니라 모든 공부에 해당됩니다. 이과 학생들은 사탐 쪽에, 문과 학생들은 과탐 쪽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이과 문과다 한 분야에 치중하지 않고 국사, 경제 등 다양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살면서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공부는 많은 시간과 인내심을 요하는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 신문 보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학창시절을 겪어 봐서 알듯이 공부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만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에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해서 재수, 삼수를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6. 저희 학교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무엇인가요?

– 처음에 업무를 익히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별루 없구 ... 하지만 처음이서 일하는데 서툴러서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게 일하며 배우는 것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요즈음 계속 늦게 까지 일하면서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보니 살도 급격하게 찌고, 원래 배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었어요.ㅠㅠ

7. 많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재미있는신 점은?

– 저는 수업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학생들도 즐겁게 들어줘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행정 업무로 바빠서 요즘 수업준비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 수업도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 학생들에게도 미안해요.

8. 경기외고에 오셔서 힘든일, 재밌는 일, 여러 가지를 겪으셨는데 경기외고에서의 생활을 평가하자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일까요?

– 8점정도? 선생님들도, 학생도 다 좋은 것 같아요. 학교가 경기외고로 바뀌다 보니까 초기에 많이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기만 한다면 개인으로서나 학교로서나 도움이 되지 않지요. 조금은 힘들더라도 서로 힘을 합쳐서 이겨내고 나중에 발전하게 된 학교의 주역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지금은 100% 만족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만족만 하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족한 점을 계속 채우려는 노력이 뭔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9. 선생님 IQ가 164이시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 …… IQ가 좋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어요. 단지 암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다는 점? 정말 별거 아니에요.

10. 하형구 선생님이랑 정세영 선생님이 결혼하셨는데, 선생님은 결혼 계획 없으세요?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 없어요^^

11. 여자친구가 없으시다면 우리 학교 여자 선생님들 중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선생님은 누구에요?

– 음… 없어요. 마음이 잘 맞아야 하는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아직 없어요. 이상형보다는 서로 맞춰 가는 게 중요해요!

12.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말했듯이 자유로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규칙이나 어떤 운영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의 자유말이에요. '항상 초심이나 나의 신념을 유지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라!' 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경기외고 여러분! 모두 끓어오르는 힘으로 후회없는 학교생활 보내시고, 졸업하시더라도 인생의 친구로 만나, 같이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관계가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박동우 선생님은?

김경애 – 맑은 영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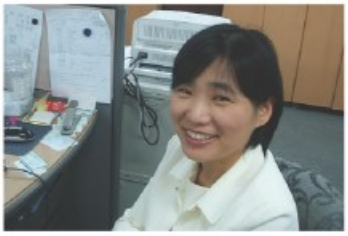
김한승 – 슈퍼 초딩 – 얼마나 순수하고 맑으신 분인데^^

정하승 – 심찬수(웃음)

이희원 기자

NONSENSE Q)s 11. What has to be broken before it can be used? 12. What can you catch but not throw?

문학소녀, 서민경 선생님을 만나보다



2009년, 명지외고가 경기외고로 변모하며 글로벌 Top7 High School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할 때, 경기외고에는 열정과 실력을 갖춘 새로운 선생님들이 학교에 들어왔다. 그 중, 1학년과 일부 2학년의 국어수업을 담당하게 되신 서민경 선생님을 만나보자.

1. GAFL에 오신 지 2달이 지난 지금, 소감은 어떻습니까?

– 신입생들의 초롱초롱 살아 있는 눈빛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를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2. GAFL에 오시게 되신 특별한 동기가 있으시나요?

–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일에 제가 빠질 수가 있나요^^

3. 교사 전에 따로 하신 일이 있으시나요?

– 대학원 졸업 후, 계속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4. 선생님의 학창시절은 어땠었나요?

– 고등학교 때는 맨 앞에 앉아 열심히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였고요^^ 대학 때는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서초동 철거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과 놀아주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매년 여름방학 때 가는 농촌활동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를 잘 쓰고 싶어 과 내의 전공학회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과에서 가는 정기적인 답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5. 학교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샘은?

– 옆자리에 앉으신 김정아 샘입니다. 교직 생활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풍부하신 분이라 제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6. 언어영역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자신의 일상에 책이 들어 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길 바랍니다. 책을 읽을 때, 정독하고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 곧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글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언어영역을 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외부세계에 집중하느라 방치해 두었던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논술의 기초는 자기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는 일기를 써 보길 권장합니다.

7. 선생님에게는 이런 학생이 제일 예뻐 보인다. 혹은 미워 보인다?

– 학생다운 순수함이 있는 학생이 제일 이쁘죠.

8. 자기 소개

– 저는 학창시절 바다를 많이 좋아해서, 바다와 관련된 시나 소설이면 무엇이든 읽고, 시에 나타난 바다이미지를 주제로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바닷가 소년과 결혼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바닷가 소년인 남편을 만나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쓰고 싶은 시가 있었는데 GAFL에 와서 쓰게 돼 함께 감상하고 싶습니다.

수업 때 항상 당찬 모습을 보이신 서민경 선생님, 다음 수업이 기대된다. 그러면 끝으로 서민경 선생님이 직접 지으신 시를 감상해보자.

장마

기우는 수평선이 토해 낸 하늘
며칠째 떠나는 것들과의 몸살을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다.
벗어날 수 없는 몸부림을 기억하는
잔해들이 널브러져
간밤의 뒤척이는 자리까지
밀려왔다 밀려오고
너에게 나를 보낼 수 없던 세월이
두려움이었다 설렘이었다
바람의 집 무너진다.
아, 내게 아직 사랑할 것이 있다면
미열 잔잔한 구름길 따라
바람의 은지느러미처럼 가리라.

물 빠진 섬이 떠다니는 하늘,
숨 고르는 중이다.

변승무 기자

정세영 선생님, "장미 99송이로 중국인 신부의 마음 사로잡아"

지난 5월 30일,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이하 GAFL)의 중국어를 담당하고 계신 정세영 선생님이 한 살 연하의 신부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여느 커플들과 달리, 정세영 선생님은 중국인 신부와 결혼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세영 선생님의 결혼 소식이 교내에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짓궂은 질문이 이어졌지만, 선생님께서는 즐겁게 답해 주셨다. 특히, 신부를 처음 만났을 때는 과외선생님과 학생 관계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대를 다녀온 이후 과외를 받게 되었는데 그 때의 선생님이 지금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 호칭에 관해서는 여자 친구가 자신을 '오빠'라는 뜻의 ge ge(꺼꺼)라고 부른다고 밝혀 학생들의 환호를 자아냈다. 정세영 선생님은 결혼 5일 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결혼을 앞둔 떨리는 심정을 전하며 '여자친구는 성격이 아주 착한 사람으로, 평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인터뷰 당시 정세영 선생님은 "요즘 너무 바쁘다"며 "내일은 또 (CHIME의) 점심방송에 나가야 한다"고 하셨다. GAFL 방송부 CHIME의 한 작가는 "정세영 선생님이 그 날 매우 긴장하셨으나 진지하게 답했다"고 전했다. 선생님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점심방송 때와 마찬가지로 수업 때의 재미있는 모습과는 또 다르게 진지한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1. 결혼 축하드립니다. 결혼을 앞둔 기분이 어떠세요?

– 일단 떨리구요 굉장히 긴장되면서, 뭐랄까 기대가 되요.(웃음) 긴장 반, 기대 반.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수업에 ASG에 결혼 준비까지 정신없는 날을 보내고 있어요.

2. 세부적인 결혼식 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5월 30일에 인천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신혼여행지는 제주도와 홍콩입니다.

3. 학기 초부터 선생님이 국제결혼을 하신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인가요?

– 네 맞아요, 사실입니다.

4.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 2001년도에 베이징 어언대학교에서 어학 연수할 때 만났어요.

(인터뷰 당시에는 간단하게 밝혔지만, 사실은 과외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한다. 정세영 선생님이 군대에 다녀온 뒤 공부를 하기 위해 과외를 받게 되었는데 그 때의 과외선생님이 바로 지금의 사모님이다.)

5. 신부님 소개와 자랑 좀 해주세요.

– 원래는 무한대학교 석사를 나와서, 도시계획설계를 전공했어요. 중국에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 짓고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와 관련된 직업을 찾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매우 착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6.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 나이는 선생님보다 한 살 어려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서른이고, 중국식 나이로는 스물여덟입니다..

7. 프로포즈는 하셨나요?

– 네, 프로포즈는 한국에서 했어요.

8. 어떻게 하셨나요?

–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말할게요.(웃음) 중국에서는 최고의 숫자가 9에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99인데요, 장미 99송이를 선물과 함께 주면서 프로포즈했습니다.

9.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 음.. 글세요. 어.. 나이가 들면서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 사람 아니면 평생을 맡길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10. 혹시 2세의 국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음.. 일단은 18세가 되면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한국인지, 중국인지.

11. 2세가 꼭 닮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 어디가 있을까, 눈? 눈썹? 성격으로는 착하고 부드러운 것을 닮았으면 좋겠어요.(웃음)

12. 2세가 절대 안 닮았으면 하는 부분은요?

– 음.. 키. 키는 컸으면 좋겠어요.

13. 학교 선생님들 중에 먼저 결혼하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 닮고 싶은 커플이 있나요?

– 이런 건 좀 난해하다. 다 좋아요. 각 커플마다 다 좋은 부분이 있어서 다 닮고 싶어요.

14. 평소 수업이 재밌는데, 혹시 여자 친구분에게도 재밌게 해주시나요?

– 아 수업이 재밌나요? 확실히 재밌어요?(웃음) 아, 평소에 여자 친구에게는 그렇게 안 해요. 수업할 때는 가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식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습득하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오버액션을 굉장히 많이 해요. 발음도 실제로 중국어를 그렇게 발음하지는 않거든요. 평소에는 그렇게 잘 안하죠.

1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 네, 우리 1,2,5,6반 tongxue(통쉐–중국어로 학생이라는 뜻)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중국어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황서영 기자

Answers: 11. An egg 12. A cold

Be happy now!

이번에 새로 오신 외국인 선생님 스티브는 진지함과 성실함 뿐만 아니라 유머와 위트까지 겸비한 정말 멋진 분이다. 선생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궁금했다. 선생님과 시간이 맞지가 않아 인터뷰는 이메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이야기를 했더니 "사진도 나와요?" 하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성심성의껏 답해주셨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 간단하게 선생님을 소개해 주세요.

– 음, 이제 한국에 온지 도 4년이 되어가네요. 처음에는 1년 있을 생각으로 왔는데, 그게 2년이 되고 3년, 4년이 되더군요. 앞으로 또 얼마나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선생님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나고 자랐어요. 대학 때문에 옮겨가기 전까지 인생의 대부분을 거기서 보낸 셈이죠. 여기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주로 음악이나 사진에 빠져 살아요. 물론 잠에도요. 친구들과 만든 밴드에서 드럼연주도 하죠. 방금 말했듯이 사진에 관심이 많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진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저와 이야기하러 오세요.

http://www.flickr.com/stevetoronto

위 사이트에서 저의 작품도 감상하실 수 있어요.

2. 한국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에 오기 전에는 기술과 관련된 글을 쓰는 일을 했었어요. 몇 개의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상품의 사용자 안내, 매뉴얼을 만들었죠. 똑똑한 프로그래머들과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일을 한다는 건 멋진 일어었죠. 하지만 그런 글쓰기는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여지도 없었어요. 또 캐나다의 큰 은행에서 교수 설계도 했어요. 우리 팀은 은행직원들이 배워야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수업자료를 만들었죠. 그건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고 선생님은 그런 경험을 빨리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평생 동안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3. 어쩌다가 선생님이라는 길을 선택 하셨나요?

– 자라면서, 선생님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학교를 사랑하지 않았기도 했고, 여러분이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적 수줍음을 많이 탔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좋아했어요. 제 생각에 선생님은 인생에 있어 흥미로운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가르치는 데 그 경험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요즘 하루하루의 수업이 그래요. 비록 머리를 벽에 박게 만드는 날이 많지만 우리 학생들은 단 하루도 제 얼굴에 웃음을 띠게 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4. 선생님은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셨나요? 십대 때의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들려주세요.

– 장난꾸러기요? 제가요? 천만에요. 저는 그 정도가 아니었죠.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저의 모든 '장난스러움'을 뽑아낸 것 같아요. 친구들과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죠. 집이랑 차에 계란 던지기, 장애우화장실의 알람 잡아당기기, 그리고 다른 많은 짓들(절대 우리 학생들과는 주고받을 수 없는 내용들)을요. 하나 더 들자면, 고등학교 때 주말에 반이 여행을 갔어요. 호텔 방 하나당 4명씩 자게 되어있었는데, 한 외톨이가 방을 같이 쓸 애들이 없는 거예요. 나와 친구들은 그 아이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날 밤에 간이침대에다 그 아이를 묶어놓고는 침대를 거꾸로 홱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옷장에 처박았죠. 그건 정말 사악한 짓이었어요. 그땐 참 바보같았죠.

5. 학생들의 수업태도는 어떤가요?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나요?

– 사실 Gafl에서 수업한 첫날 학생들의 실력에 입이 벌어지더군요. 몇몇 학생들은 지금도 저를 놀라게 하죠. 분명히 어떤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참여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은 누구에게나 참여의 기회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주로 말하는 반이 있는 반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반도 있기 때문이죠.

6. 가장 좋아하는 한국음식은 무엇인가요?

– 한국음식 매우 좋아합니다. 김치찌개, 삼겹살, 된장찌개도 상위메뉴에 들어가지만, 꼭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꼽으라면, 뼈다귀 해장국이죠.

7. 한국에서 문화적 차이를 느낀 적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 한국을 좋아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느낍니다. 제가 청주에서 살 때의 경험이 떠오르는 데요, 그때 전 한국에 온지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한국어도 잘 못 할 때였죠. 여름이었는데 밤에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베스킨라빈스에 갔죠. 3명의 아가씨가 있었는데, 제가 주문하려고 할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 겁니다. (한국에서) 아가씨들이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으면 그게 부끄러움을 타는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결국 화를 내며 뛰쳐나와 버렸죠. 정말 화가 났었어요.

8.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말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합니다.

– 선생님은 유머를 써먹는 것을 권하고 싶군요. 사람들이 웃으면 앞에 있는 사람은 좀 더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실 같은 환경에선 말이죠. 또 그냥 자신감을 갖고 편안해져 보려고 해보세요. 대중 앞에서 자신감을 갖고(최소한 그런 것처럼) 말한다는 건 그냥 부단히 해보는 것이 능사이니까요.

9. 선생님께서는 인생의 모토가 있으신가요?

– 저의 요즘 인생철학은 그냥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동안 많은 세월을 일하고 나중에 행복해질 것을 꿈꾸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중대한 실수를 했죠. 현재는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미래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렵니다.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법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지를 모르니, 지금 가진 것으로 뭔가 해보세요. 하지만 신중해야 해요! 그건 지금 학교를 그만 두고 친구들과 나다니거나 그런 종류의 바보 짓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0. 일생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 제 목표는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한때는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넓은 집에 좋은 차도 갖고 싶었죠. 그게 제 목표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비현실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만약 이루어지기로 되어있다면,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지금 원하는 것은 나에게 도전하여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목표가 있는데 그건 더 나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배우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저를 좀 더 프로답게 개발하는 것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Gafl의 선생님이 된다는 '도전' 이 그런 자기 개발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제가 더 나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저를 격려해주고 채찍질해주세요. 아마 우리는 모두 좋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의 답변은 정말 진실하고 솔직했다. 앞으로 우리의 2학기 수업이 기다려진다.

박선홍 기자

MOS, 너의 정체가 궁금해

MOS는 Microsoft Office Specialist의 준말로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3 프로그램을 얼마나 능숙하고 심도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의 형제격인 MCAS(Microsoft Certified Application Specialist)는 오피스2007버전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올해 처음 나왔지만, 2009년 GAFL 2학년들은 컴퓨터 수업으로 MOS Excel Core를 준비하였다. 사실 경기외고는 올 해 컴퓨터실을 향상시켜 MOS/MCAS 공식테스트 센터로 지정되면서 2009 경기외고 MOS/MCAS Contest를 개최하였고, 이 콘테스트에서 컴퓨터 수업을 열심히 들은 많은 학생들이 상장 및 부상을 받았다. MOS Excel Core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합격할 만큼 쉽고, 게다가 GAFL 2학년들은 수업을 배운 장소인 컴퓨터실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험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이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은 ASG2타임 때의 특강을 이용하여 더 높은 수준의 Expert나 MCAS를 대비했다. 이번 MOS 시험을 통해 학생들은 허전한 비교과에 한 줄 더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성적으로 교내상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였다. 한편 이 시험과는 별개로, 많은 학생들은 2학년 중간고사 컴퓨터 성적을 기준으로 국가대표를 뽑는 MOS본선대회에 추천받아 전국각지의 학생들과 경쟁을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변승무 기자

1학년 학생들의 여름 방학 공부 비법

언어영역의 고수가 되자!

국어과 이기찬 · 서민경 선생님 인터뷰

우선 언어영역의 문학을 공부할 때는 자신의 취약부분을 알고 있어야 하며, 방학을 이용하여 그 부분의 문제집을 풀어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문학독해는 하루에 한 세트나 이틀에 두 세트씩 꾸준히 풀 수 있도록 한다. 비문학의 많은 분야 중에서 자신이 취약한 내용을 파악한 후 그 분야의 지문을 좀 더 다뤄야한다. 또한 비문학 지문을 다룰 때는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중심 구를 찾는 연습, 중심 용을 찾고 지문을 요약하는 연습도 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이것을 하는 것이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논술 실력도 향상된다. 논술은 핵심내용을 찾고 요약하여 자기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논술의 기본인 '자신의 감정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때 일기를 쓰는 것은 좋은 수단이다. 또 하루에 5분씩 일주일 동안 어떤 주제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는 노력도 좋다. 이 생각, 저 생각 해보고 마지막 남은 내용의 체계를 세운다. 이 활동은 사고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한마디로 논술에서는 스스로 사고하는 힘이 중요하다. 또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독서도 하자. 독서의 중요성은 이미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신과 수능을 구분지어 공부하기보다는 교과 과정과 수능을 연계하여 일원화해서 공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방학을 잘 활용'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잘 알아두고 위의 방법을 실천하며 꾸준히 체계 있게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

노지원 기자

경기외고 학생들을 위한 수학공부 비법!

수학은 복습보다 예습이 중요.
답지를 보지 말고 공부해야.
수학과 박동우 선생님 인터뷰

박동우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학공부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았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 주신 박동우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선생님은 수리 영역은 표준 점수가 높기 때문에 전략과목이라고 말씀하셨다. '표준 점수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100점을 맞으면 내가 왕" 이라는 말을 쓰셔서 기자를 웃게 만드셨다. 그럼 표준 점수가 높은 수리 영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선생님은 '외고생들에게 수리 영역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 방학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 이라고 하셨다. 방학 기간 동안 모르는 문제,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는 것. 이 때 중요한 것은 답지를 보지 않는 것이다. 답지를 보지 않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하셨다. 또 선생님은 복습보다는 예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내신과 수능은 결국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습을 해서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또한 학생에 따라 다르지만 좋은 문제집은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가 30%정도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다.

외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 수능을 노려보자.

경기외고 학생들의 영어 공부를 위해 유형숙 선생님이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영어 실력 향상의 핵심은 시간관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단어를 외우거나 듣기를 해서 감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내신 역시 효율적으로 준비하자는 것이었다. 영어 공인 점수를 위해서는, TEPS의 Listening의 경우 단어가 매우 어려우니 단어를 열심히 외울 것, IBT토플은 공인 시험 중 점수 올리기가 가장 쉬운 영역이니 서머라이징 연습과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다. AP는 빠르면 1학년 2학기, 늦어도 2학년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3학년이 되면 수능에만 치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는 또 수시에만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 수능을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소설을 많이 읽어서 영어에 대한 감을 쌓아가라는 말씀도 해 주셨다.

김선진 기자

2학년 학생들의 여름방학 동안의 공부비법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공부' 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과목별 공부법에 대한 2학년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언어, 수리, 외국어 분야의 선생님을 인터뷰하였다. – 이 기사 내용은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기자가 직접 요약하고 편집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주원 선생님–수학(언수외 과목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2학년들이 이번 여름방학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과목은 수학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름 방학때 해야 할 공부 중 하나가 바로 부족한 유형에 대한 보충이다. 물론 이 보충을 학원이나 인강 등의 방법을 통해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예전에 풀었던 문제집을 활용하는 것인데, 우선 예전에 풀었던 문제집을 단원별 혹은 보다 세심한 부분별로 구분하여 취약한 유형과 분야를 파악한다. 그 후 그 분야에 대한 개념 보충과 문제풀이 등을 통해 취약한 파트를 보충한다. 그 후 공부해온 것에 대해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이 때 기본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기본서란 수학의 정석, 풍산자, 개념유형과 같은 책을 말하는데, 이러한 기본서를 이용하여 피드백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지속한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백영옥 선생님–언어

언어공부는 지문 독해가 80%이상이다. 문제도 답도 다 지문 속에 있다. 따라서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간혹 문제 풀이 속도가 매우 빠른 친구 중에 독해를 세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점차 고학년이 되고 지문의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한계가 온다. 또한 문제 풀이 속도가 너무 느린 친구들이 있는데 이 또한 지문 독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문 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우선 비문학과 문학으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비문학의 경우 정확한 이해와 요약 능력 함양이 필요하며 문학의 경우 화자와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감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습은 매일 꾸준히 여러 지문들을 접해 봄으로써 할 수 있는데 문학의 경우 하루 2지문 정도, 비문학의 경우 하루 1~2지문 정도가 적합하다. 그리고 어휘력과 집중력 부문의 향상도 언어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습을 계속 하다보면 가속도가 붙어서 속도와 정확성 모두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홍지영 선생님–영어

대학 입시에 있어 수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수능영어의 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경기외고 학생의 수준을 고려할 때 수능영어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TEPS 준비에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한데 2학년의 경우 현재 780~840점대에 있는 친구들이 준비하는 것이 적합하다.(840점 이상도 물론 좋다.)다만 내신이 6등급 이하이거나 모의고사 점수가 불안한 친구들의 경우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2학년의 경우 이번 여름 방학을 TEPS를 공부하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공부한 후, 3학년 4월경까지 시험을 치는 것이 다른 공부에 미치는 지장을 최소화하며 TEPS를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다. 물론 여름방학 후에도 TEPS시험 직전에는 공부를 해야 한다. 910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협조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혁 기자

경기외고 학생들을 위한 수학공부 비법!

수학은 복습보다 예습이 중요. 답지를 보지 말고 공부해야.

박동우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학공부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았다. 먼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 주신 박동우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선생님은 수리 영역은 표준 점수가 높기 때문에 전략과목이라고 말씀하셨다. '표준 점수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100점을 맞으면 내가 왕" 이라는 말을 쓰셔서 기자를 웃게 만드셨다. 그럼 표준 점수가 높은 수리 영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선생님은 '외고생들에게 수리 영역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방학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 이라고 하셨다.. 방학 기간 동안 모르는 문제,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는 것. 이 때 중요한 것은 답지를 보지 않는 것이다. 답지를 보지 않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하셨다. 또 선생님은 복습보다는 예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내신과 수능은 결국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습을 해서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또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좋은 문제집은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가 30%정도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다.

외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 수능을 노려보자.

경기외고 학생들의 영어 공부를 위해 유형숙 선생님이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영어공부의 핵심은 시간관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단어를 외우거나 듣기를 해서 감을 놓치지 말고 내신 역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영어 공인 점수를 위해서는, TEPS의 경우 리스닝의 단어가 매우 어려우니 단어를 열심히 외우라는 것과 IBT토플의 경우 공인 시험 중 가장 점수 올리기가 쉬운 영역이니 서머라이징 연습과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다. AP의 경우는 빠르면 1학년 2학기, 늦어도 2학년때부터는 준비를 시작하고 3학년 때는 수능에만 치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또 수시는 많이 기대하지 말고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라는 조언을 해주셨고 영소설을 많이 읽어서 감을 쌓아가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

세계 속의 에딘버러, GAFL을 변화시키다

요즘 학교 내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고 있다. 기부 모금 운동을 하거나 자선 바자회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매일 점심시간 급식실에서는 '잔반을 남기지 맙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1학년 학생들의 희망찬 목소리가 들린다. 세계적으로 126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6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Award)가 경기외고에 가져온 변화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Award)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부군인 Edinburgh공작에 의해 1956년 설립되어, 만 14-25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들이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 및 탐험 활동, 집단 합숙 활동을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청소년 자신 및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국제적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계하고 그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자아 발견, 성장, 자립, 인내, 스스로에 대한 책임과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정신을 기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실행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작년에 시작해 올해로 2기를 맞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리 학교는 올 3월부터 이 제도를 시작하였으며 총 92명의 많은 학생들이 열의를 보이며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매주 화요일에는 조를 편성하여 조원들과 함께 한 주의 성과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포상활동의 모든 과정을 완수하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자격증과 배지를 받음으로써 참가자들은 성취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전을 시작한 모든 GAFLIAN들에게 올 12월 열리는 포상식에서 그들이 직접 일궈 낸 '성취의 메달' 이 돌아가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세계시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김건희 기자

명지외고에서 경기외고로의 또 다른 변화 – 장학금규정

명지외고에서 경기외고로의 또 다른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한다면 확대된 장학금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에서의 장학제도의 목표는 면학분위기 조성과 함께, 본교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학금의 종류에는 크게 교내장학금과 법인장학금, 외부장학금으로 나뉘는데, 교내장학금에서도 GAFL장학금과 Vision장학금, Leadership장학금, 법인 및 교직원자녀 장학금, 총 4종류가 있다. 법인장학금 역시 이사장장학금, 눈높이장학금, 글로벌장학금 총 3종류로 이루어져있다. 장학생 선발은 Vision장학금, Leadership 장학금과 법인 및 교직원자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장학금들은 직전학기 내신 성적과 장학생 선발고사의 환산성적을 반영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장학금 종류마다 그 지급되는 액수도 1학기 기숙사비를 지급하는 것부터 1학기 기숙사비, 수업료, 회비 모두를 지급하는 것까지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확대된 장학제도는 경기외고 학생들이 보다 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동기를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장학제도에 자세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주영 기자

5		1						9
	ⓐ			ⓑ	3	7	ⓒ	4
	3				4		8	1
		6	5		2		4	
ⓓ			ⓔ			ⓕ		
	1		7		6	8		
6	5	ⓖ	8		ⓗ		7	ⓘ
1		2	3					
4						1		8

8	6			3	1			
1		7					6	
		9	6	7			8	
				5	4	3		
	4						9	
		1	3	8				
	1			4	7	9		
	8					2		1
			8	1			4	5

Daily SuDoku: Sun 29-Jul-2007 very hard

	3				1			
6				5		1		
2			6				9	5
		9	4					
8		1				6		3
					3	7		
4	6				2			7
		3		4				1
			5				6	

Daily SuDoku: Tue 24-Jul-2007 very hard

18세기 스위스의 천재 수학자 레온하르트 오일러가 고안한 스도쿠(Sudoku)는 가로와 세로 9×9의 상자 안에 1부터 9까지 숫자를 수직 · 수평은 물론, 작은 3×3 상자 안에서도 서로 겹치지 않게 써 넣는 퍼즐게임입니다. 어느 한 곳의 숫자가 틀리면 스도쿠는 실패하게 됩니다. 스도쿠는 푸는 재미는 물론, 자신도 모르게 논리적 · 수학적 지능을 높이는 효과도 있어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What the Face!
2009학년도의 최고의 순간을 응모해주세요!

2009년 1학기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최고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을 보내주세요.
침흘리며 자는 친구의 사진, 훈남 포스가 느껴지는 사진,
끈적한 우정을 과시하는 사진… 등
종류를 가리고 않고 다 받습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소개글을 적어주세요.

- 응모기간 : 여름방학 시작일 ~ 8/30
- 응모방법 : 010-9383-0441 또는 saver0216@naver.com 으로 보내주세요.

O학년 O반 임O현, 임준O
제목 : 죽음의 무도
– 김연아 선수의 '죽음의 무도'의 강렬한 포즈를 촬영했습니다.
대단한 포스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_-

가장 강력한 사진을 보내신 분 3명에게는 대량의 상품이 주어집니다.
(문화상품권 5,000원권) GAFL의 별명 사진도 환영입니다.)
※ 경고–저작권 문제는 응모하시는 분의 책임입니다.

Answers: 15. Electricity 16. Library